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아버지 다윗의 소원

본문: 역대상 22:6-16절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로서 열왕기와는 다르게 남 유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평가합니다. 두 권으로 나누어진 역대기서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네 부분으로 서술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역사(역대상 1-9장),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솔로몬의 즉위 전 다윗의 통치(역대상 10-29장),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건축(역대하 1-9장), 남 유다의 왕들(역대하 10-36장)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으나,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부탁합니다(6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건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7-8절). 그 내용은 영적 차원의 대화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또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7-8절).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궁중악사로 시작하여 전쟁터를 누비며,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사무엘하 8:6, 14절; 역대상 18:6, 13절)라는 성경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마지막 꿈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9-10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9절).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온 나라 국민에게까지 태평성세를 누리게 할 것이며, 그 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어 영원히 이어가게 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 가운데서 나게 된다고 예고해 줍니다(10절).

셋째, 다윗은 아들을 향해 다섯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11-13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빌어준 축복은, ①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입니다(11절).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성공과 은총, 평화와 번영이 있습니다. ②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10-11절). ③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합니다. ④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13절). 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13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는 소원을 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는 자녀에게 저주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 여러분은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내집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아 깡마른 소년의 행색은 너무나 더럽고 초라했습니다. 수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더러운 옷을 빨아 입혀준 뒤 따뜻한 국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소년을 침대에 데려다 뉘였습니다. 소년은 평화로운 얼굴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소년은 <어린이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를 안 수녀들이 소년을 쫓아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기회를 엿보다 또 다시 도망쳤습니다.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 잠자리를 왜 마다하는지 수녀들은 의아스러웠습니다. 다른 수녀들로부터 소년의 얘기를 전해들은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소년의 곁을 지키다가 소년이 가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한 수녀가 소년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소년이 어김없이 도망을 쳤고, 수녀는 소년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소년은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 밑에 한 여인이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듯한 온갖 음식 찌꺼기들을 작은 질 그릇에 담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옆에서 기쁜 얼굴로 음식이 끓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녀가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두려운 눈빛을 띤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수녀가 미소를 띠우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어린이의 집>을 도망쳤니?" 소년은 여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수녀는 <어린이의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그간의 일을 테레사 수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그곳이 소년의 집이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소년에게는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것일지라도 맛있는 성찬이지요...."

THINK

사랑스런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가 내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그리운 나의 집이 있다는 건 참 행복입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더 사랑하기를, 더 품어주기를 마음으로 다짐해보십시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6월 1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6월 29일
마을특송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 김	샬 롬
대표기도	정주영 권사	하인애 권사	김미란 권사	박윤미 권사	손숙희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6월 26일
본당청소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중식봉사					

주요광고

- 총동원가족주일(성찬식) / 일시: 6월 5일(주일) 오전 9, 11시 / 장소: 3층 본당.
- 마을장·목자 정기교육 / 6월 5일(주일) 오후예배 후 / 장소: 3층 본당.
- 월요복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 필참).
- 목요향기로운예배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중식 제공).
여성을 위한 영성회복의 시간, 가정을 위한 중보사역의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담임목사 동정 / 예성부흥사회 강단교류를 위해 담임목사님께서 벤엘교회(김신호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일시: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벤엘교회).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암수집사회 / 다음 주: 집사회)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기도 – 김수차 권사/ 유수림 권사/ 김해생 권사/ 이문형 장로/ 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
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 유준자 권사/ 조병양 집사/ 조인상 집사/ 문동준 청년/ 최진수 장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_Paul